

동향과 분석

제5차 (2003년 하반기) 남북경협에 관한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 북한경제팀

1. 설문조사 개요

□ 본 조사의 특징과 목적

- 본 조사는 2001년 11월 처음 실시된 이후 매 6개월마다 반복되어 온 『남북경협에 관한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제5차 설문조사로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1차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경제리뷰』 2001년 11월호를 참조
 - 2차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경제리뷰』 2002년 5월호를 참조
 - 3차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경제리뷰』 2002년 11월호를 참조
 - 4차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경제리뷰』 2003년 5월호를 참조
- 남북경협에 관한 기존의 설문조사들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KDI 설문조사는 매 6개월마다 동일한 대상을 상대로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므로 보다 신뢰성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이를 위해 교역업체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망을 구축하여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또한 본 설문조사는 대북 교역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동일한 문항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대북 교역업체와 전문가 사이의 견해 차이를 파악하

여 보다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03년 11월 12일~18일

조사방법

- 조사방법 : E-mail, FAX를 통한 on/off line 설문조사
- 설문 작성 및 결과 분석은 KDI 북한경제팀에서 담당하였으며, 설문조사 수행 및 통계처리는 KDI 경제정보센터가 담당

조사대상 및 응답률

- 교역업체 모니터링 망 대상 설문조사
 - 2002년 5월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된 148개 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 확인 결과 그 동안 대북교역을 중단한 다수의 업체들을 본 설문조사에서 배제
 - 또한 2002년 5월 모니터링 망 구축 이후 신규로 대북사업을 시작한 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 확인 결과 설문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다수의 업체들을 본 설문조사부터 대상 업체로 포함
 - 따라서 금번 제5차 설문조사부터 보완된 교역업체 모니터링 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총 21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130개 업체가 응답 (응답률 : 61.3%)
- 전문가집단 모니터링 망 대상 설문조사
 -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모니터 위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발송
 - 그 중 33명이 설문에 응답 (응답률 : 78.6%)

주요 조사내용

-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
- 남북교역사업의 현황
- 최근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북교역사업에의 영향
-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전망
- 4대 경협합의서의 효과와 과제

2. 조사결과 요약

가. 제5차 (2003년 하반기) 조사결과 요약

□ 남북교역의 전망 및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교역업체들의 경우 129.6, 전문가집단의 경우 154.5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KDI가 2001년 11월 제1차 조사 이후 본 조사까지 교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모두 가장 높은 수치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현 상황을 100으로 두고 향후 전망이 최상이면 200, 최악이면 0으로 설정하여 가중평균한 수치
- 각 개별 교역업체들의 내년도 대북교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응답한 업체들 중 83.8%가 '확대' 혹은 '현상유지'는 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5.4%에 불과
- 한편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에 관한 질문에는 교역업체들은 '물류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35.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정치·외교적인 문제'(54.5%)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남북교역사업의 현황

- 남북교역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한 교역업체의 절반이 되지 않는 44.6%만이 '그렇다'고 응답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위탁가공 업체들의 58.3%가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은 39.5%만이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응답
 - 또한 20%미만 업체들과 5년이상 업체들의 경우 각각 30.0%, 37.0%만이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
- 남북교역사업의 주요 품목으로는 '농수산물 등 1차산업'이 58.5%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가 16.9%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전기·전자제품'이 6.2%의 응답률을 기록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단순교역 업체들의 76.7%가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섬유류' 부문과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각각 1.2%, 2.3%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 이와 반대로 위탁가공 업체들의 13.9%만이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58.3%인 과반수 이상이 '섬유류'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7%가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
- 교역물품의 최종 수요지역에 대한 문항에는 '전량 국내(남한)에 판매'에 72.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일부는 국내 일부는 외국으로 판매'도 20.0%의 응답률을 기록
 - '국내 판매와 외국으로의 수출'에 응답한 교역업체들의 평균 판매 배분비율은 국내 판매가 66.2%, 외국으로의 수출이 33.8%

□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한 조사

- 북한의 7·1조치 중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대북 교역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에는 '납기일자 준수'와 '상품의 질 향상'에서 각각 교역업체들의 30.0%, 33.8%가 좋아졌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상품의 다양성 제고'는 17.7%만이 좋아졌다고 응답
 - 그러나 여전히 각 항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
 - 반면 전문가들에게는 이 세가지 항목 중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납기일자 준수'가 가장 높은 48.5%의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변화가 없다'는 24.2%의 응답률을 기록

□ 개성공단 입주 의사에 대하여 교역업체들에게 질문한 결과 '현재 입주를 구체적으로 계획'(4.6%)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고려'(18.9%)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33.8%를 차지

- 개성공단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존의 대북 교역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9.6%이고,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8.7%에 불과

□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교역업체들의 입장은 '전력, 통신, 용수, 수송 등 인프라 확충의 보장'(46.9%)이 가장 중요

- 교역업체들은 또한 '채류자의 신변보장, 통행의 자유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 보장'(33.8%), '세금, 규제, 소유권 등 제도적인 장치 분명'(12.3%) 등 순으로 표명
- 전문가들의 입장 또한 비슷하게 '인프라 확충'(45.5%), '안정적인 기업경영'(36.4%), '제도적인 장치' 및 '노동력 활용' 각각 9.1% 순으로 표명

- 개성공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단지 조성 계획이 개성공단에 끼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한 교역업체의 57.7%, 전문가 집단의 90.9%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
- 개성공단 관련 정보의 취득경로로는 교역업체의 40.0%가 '언론 매체'를 들었으며, '정부의 공식 자료'(30.8%), '중개인'(10.0%), '북한관련 연구소 자료'(9.2%) 등의 순으로 파악
 - 그러나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66.9%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3.9%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4대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로는 교역업체의 경우 '납기 및 품질, 클레임 관리가 보다 유리하게 발전'될 것이 가장 많은 27.4%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경우 '투자보장에 따라 투자 및 협상력 확대'가 가장 많은 32.3%로 응답
-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숙지 정도는 교역업체의 47.7%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9.3%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이는 앞에서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과 마찬가지로 교역업체들이 대북사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에 대한 취득 및 이해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관련 연구소 및 언론 매체 등의 대북사업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는 교역업체는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26.4%)를, 전문가들은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31.3%)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
 - 교역업체들은 또한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22.3%),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19.4%), '환결제 방안 수립'(11.2%) 등의 순으로 응답
 - 전문가들은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22.4%),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11.9%), '산업재산권 보장'(11.9%) 등의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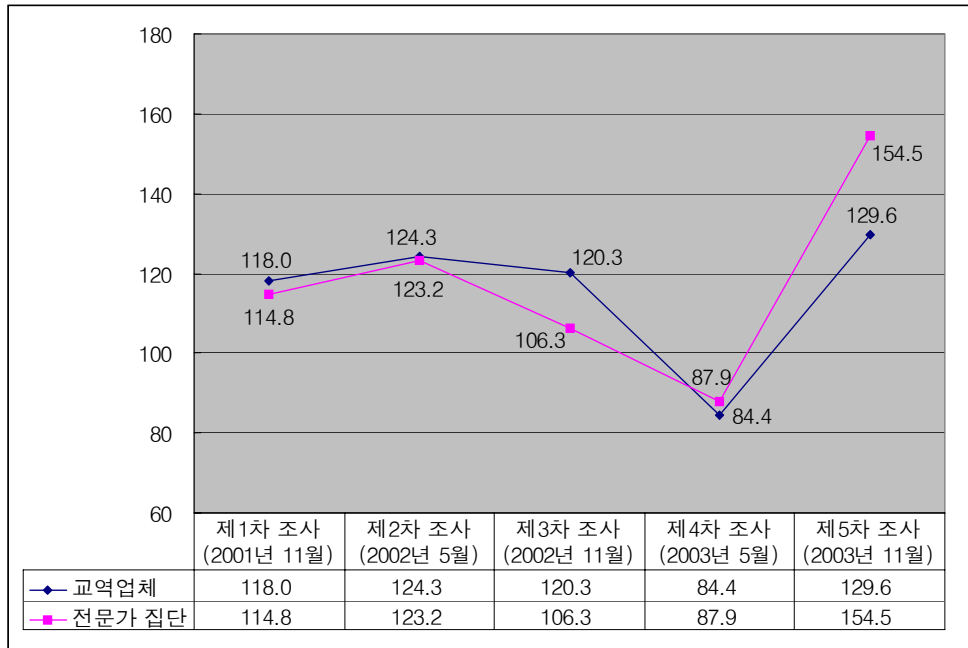
나. 제1, 2, 3, 4차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하반기 및 2003년 상반기) 조사결과와의 비교 요약

-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 비교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KDI가 2001년 11월 제1차 조사 이후 본 조사까지 교

역업체 및 전문가 대상 모두 가장 높은 수치

- 업체대상의 경우 제1, 2, 3차 조사에서 전망지수 120 정도로 다소 긍정적이었
다가 지난 5월 제4차 조사에서 북한의 핵위기 확산 등의 이유로 전망지수가
84.4로 추락, 본 조사에서 다시 129.6으로 반등
-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 2, 3차 조사에서는 100을 다소 상회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으나 제4차 조사에서는 87.9로서 부정적 전망을
피력했던 것이 본 조사에서 다시 154.5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

<그림 1> 남북교역 전망지수 (제1차~제5차)



- 업체들의 향후 대북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9.2%로서 이 또한 제1, 2, 3차 조사(각각 28.7%, 39.3%, 35.1%)의 응답에서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었던 제4차 조사(24.4%)에서 다소 반등하는 모습

□ 남북교역을 통한 이익 창출 증가

- 남북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4차 조사에서 과반수를 상회하는 52.6%를 기록하였다가 본 조사에서 다시 과반수가 되지 않는 44.6%로 하락

- 제1차 조사의 33.0%에서 제2차 조사시 44.9%로 증가, 제3차 조사시 다시 44.6%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으나, 제4차 조사에서는 다시 52.6%로 다소 증가, 그러나 본 조사에서 다시 44.6%로 감소
- 교차분석 결과는 제1, 2차 조사시에 위탁가공 업체들이 단순교역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제3차 및 제4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단순교역 업체가 더 이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 그러나 본 조사에서 다시 위탁가공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윤을 보는 것으로 응답
 - 한편 위탁가공 업체들은 제3차 조사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에서 이윤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
 -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은 제4차 조사에서 과반수를 넘는 55.6%가 이윤을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외 다른 조사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 수가 이윤을 보고 있다고 응답
 - 따라서 위탁가공 업체들이 단순교역 업체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

<표 1> 위탁가공과 단순교역 업체간 경제적 이윤의 비교

	전체		위탁가공 업체		단순교역 업체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이윤 있다	이윤 없다
제1차 조사	33.0%	66.1%	50.0%	50.0%	31.3%	68.7%
제2차 조사	44.9%	53.3%	59.4%	34.4%	42.2%	57.8%
제3차 조사	44.6%	55.4%	43.5%	56.5%	45.1%	54.9%
제4차 조사	52.6%	46.2%	51.7%	44.8%	55.6%	44.4%
제5차 조사	44.6%	53.8%	58.3%	38.9%	39.5%	59.3%

주: 각 부분에서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무응답 때문

□ 주요 품목 및 최종 수요지역

- 남북교역사업의 주요 품목의 구성 비율은 제2, 3, 4차와 제5차 조사시 거의 비슷하게 응답 (제1차 조사시에는 주요 품목에 대한 설문 이 없었음)
 - 제2, 3, 4, 5차 공히 '농수산물 등 1차산품'(각각 56.0%, 54.1%, 52.6%, 58.5%), '섬유류'(20.6%, 18.9%, 23.1%, 16.9%), '전기·전자제품'(8.4%, 8.1%, 10.3%, 6.2%) 순으로 응답

- 교역물품의 최종 수요지역 또한 제3, 4차와 본 조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응답
 - 제3, 4, 5차 공히 '전량 국내(남한)에 판매'에 각각 68.9%, 66.7%, 72.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일부는 국내 일부는 외국으로 판매'에 각각 20.3%, 26.9%, 20.0%의 응답률을 기록

□ 북한의 7·1조치의 일환인 성과급제도가 남북경협에 끼치는 영향

- 북한의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제3차와 제4차 조사에서는 몇 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가장 변화한 것을 묻는 형식으로 질문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각 항목당 변화 정도를 묻는 방식으로 질문
 - 제3차 및 제4차 그리고 본 조사에서도 역시 성과급제도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한편 전문가집단에 동일한 질문을 제3차 및 제4차 그리고 본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교역업체들의 반응 이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문가집단의 견해가 교역업체들의 실제 경험과는 차이가 있으나 북한의 성과급제도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개성공단 입주계획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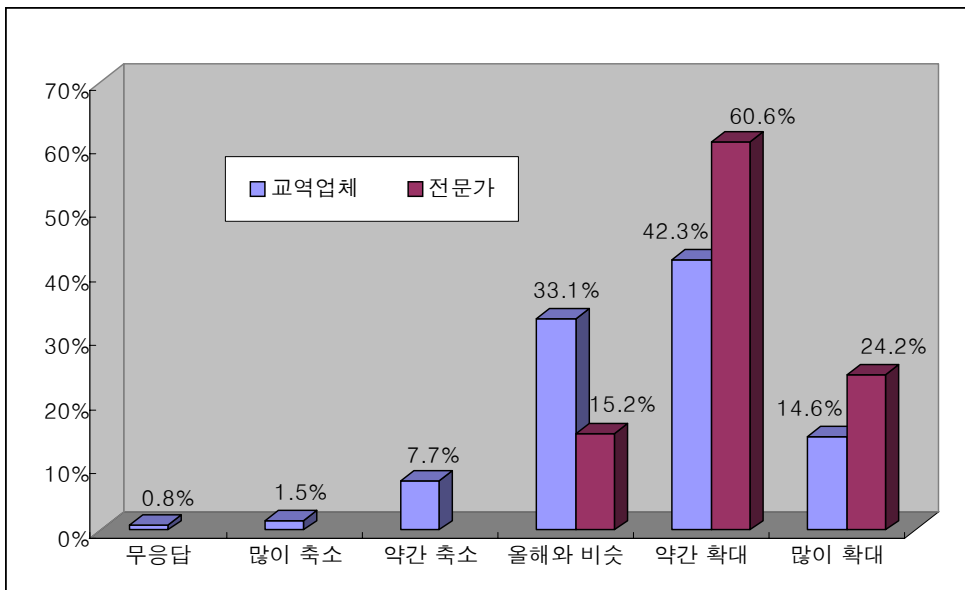
- 제1차 및 제3차 그리고 본 조사에서 개성공단 입주의향을 교역업체들에게 질문한 결과 점진적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긍정적으로 전환
 -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제1차에서는 1.7%, 제2차에서는 2.7%,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4.6%로 집계
 - 반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제1차에서는 38.3%, 제2차에서는 33.8%,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26.2%로
 - 그러나 전 3회 조사에서 공히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40%를 상회하는 다수로서 교역업체들이 여전히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로 분석
- 한편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는 지난 3차 조사와 본 조사에서 교역업체 및 전문가 공히 '전력, 통신, 용수 등 인프라 확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3. 제5차 조사결과 분석

가.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

- 내년도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은 금년 교역상황과 비교하여 교역업체 및 전문가 모두 상당히 밝아질 것으로 평가
 - KDI 남북교역 전망지수는 교역업체들의 경우 129.6, 전문가들의 경우 154.5로 분석되었는데, 본 전망지수는 현 상황을 100으로 두고 향후 전망이 최상이면 200, 최악이면 0으로 설정하여 가중평균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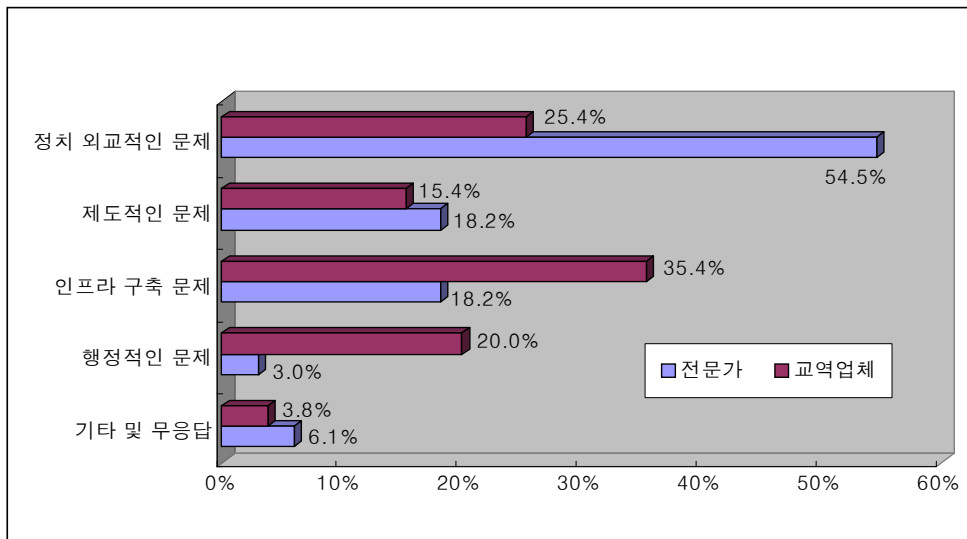
<그림 2> 내년도 북한과의 교역량 전망 (금년 대비)



-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전망이 교역업체들이 평가하는 전망보다 월등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응답한 전문가 33인 모두 교역량이 늘어날 것 혹은 적어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평가
- 한편 교역업체들의 그룹별 교차분석에서 위탁가공 업체들보다는 단순교역 업체들이, 대북사업 매출액 비중이 20%미만인 업체들보다는 20%이상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전망

- 각 개별 교역업체들의 내년도 대북교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응답한 업체들 중 83.8%가 '확대'(29.2%) 혹은 '현상유지'(54.6%)는 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5.4%에 불과
 - 그러나 내년도 남북교역량 전망에서는 교역업체들의 56.9%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개별 교역업체들의 사업계획에서는 29.2%만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전반적인 교역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나 각 개별 교역업체들의 사업확대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경향
 - 또는 각 개별 교역업체들의 사업결정에는 교역환경 뿐만 아니라 각 업체들의 내부 의사결정에 끼치는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교역업체들의 그룹별 교차분석에서는 간접교역 업체들보다 직교역 업체들이, 대북사업 매출액 비중이 20%미만인 업체들보다 20%이상인 업체들이, 대북사업 기간 5년 이상의 업체들보다 5년 미만 업체들이 사업확장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한편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에 관한 질문에는 교역업체들은 '물류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그림 3>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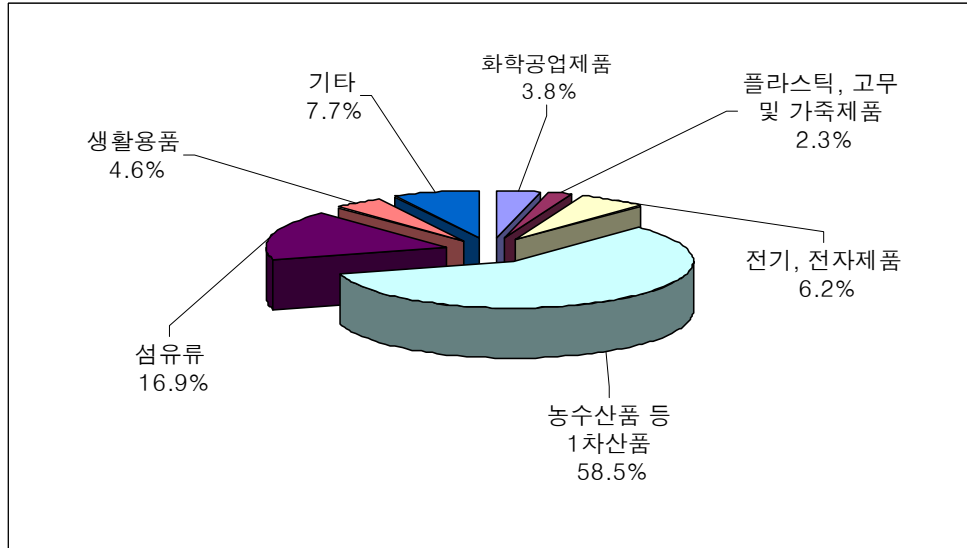


- 교역업체들의 응답은 '인프라 구축 문제'(35.4%), '정치·외교적인 문제'(25.4%), '행정적인 문제'(20.0%), '제도적인 문제'(15.4%) 순으로 집계
- 반면 전문가들의 응답은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고(54.5%), '인프라 구축 문제' 및 '제도적인 문제'가 각 18.2%, '행정적인 문제'는 3.0%에 불과
- 이는 교역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요 내부 요소들의 중요성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전문가들은 사업의 진행과정보다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에 필요한 외부 요소들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
 - 특히 교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에 관한 지원 등 행정적인 문제'(20.0%)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3.0%)에 주목할 필요
- 한편 교역업체들의 그룹별 교차분석에서는 위탁가공 업체들은 '인프라 구축 문제'가 압도적으로 중요(61.1%)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은 '정치·외교적인 문제'(32.6%)가 '인프라 구축 문제'(25.6%)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

나. 남북교역사업의 현황

- 남북교역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한 교역업체의 절반이 안되는 44.6%만이 '그렇다'고 응답
 - 대북사업 방식에 대한 그룹별 교차분석 결과는 직교역 및 간접교역만을 하는 업체들에게서 별 특이사항이 없으나 직교역과 간접교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업체들에게서는 28.6%만이 이익을 남기고 71.4%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응답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위탁가공 업체들의 58.3%가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은 39.5%만이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응답
 - 대북사업 매출액 비중 및 대북사업 기간별 교차분석에서도 대북사업 매출액 비중이 20%이상인 업체들과 대북사업 기간 5년미만 업체들의 경우 각각 58.9%, 49.3%가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한 반면
 - 20%미만 업체들과 5년이상 업체들의 경우 각각 30.0%, 37.0%만이 이익을 남긴다고 응답
- 남북교역사업의 주요 품목으로는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이 58.5%로 가장 많았고, '섬유류'가 16.9%로 그 다음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전기·전자제품'이 6.2%의 응답률을 기록

<그림 4> 남북교역사업의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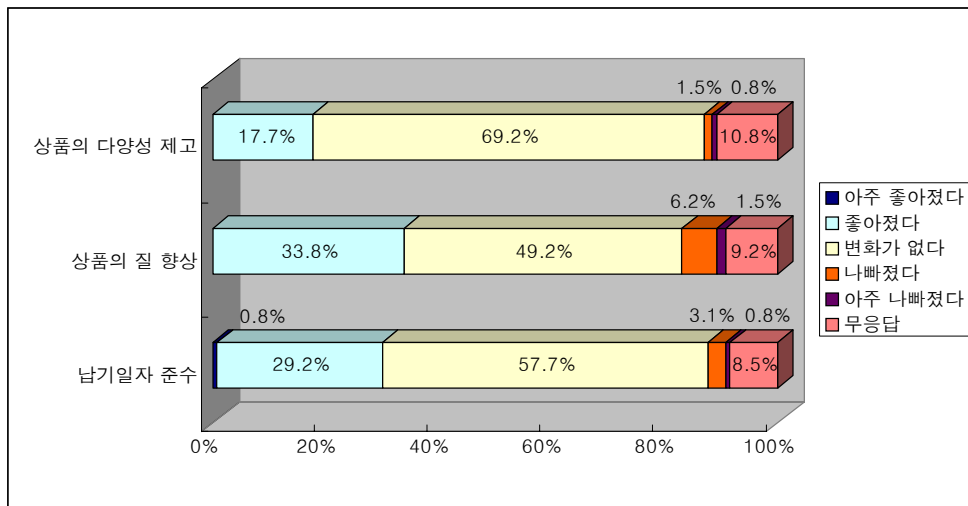
- 대북사업 형태별 교차분석에서는 단순교역 업체들의 76.7%가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섬유류' 부문과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각각 1.2%, 2.3%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 이와 반대로 위탁가공 업체들의 13.9%만이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 응답한 반면, 58.3%인 과반수 이상이 '섬유류'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7%가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
- 한편 대북사업 참여기간이 5년미만인 업체들 중 '농수산물 등 1차산업',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부문에서 사업을 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65.2%, 13.0%, 4.3%인 반면 5년이상인 업체들에서는 각각 48.1%, 22.2%, 9.3%의 응답률을 기록
 - 이는 5년 전 과거에는 지난 5년간 새롭게 진입한 업체들의 사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
- 교역물품의 최종 수요지역에 대한 문항에는 '전량 국내(남한)에 판매'에 72.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고 '일부는 국내 일부는 외국으로 판매'도 20.0%의 응답률을 기록
- '국내 판매와 외국으로의 수출'에 응답한 교역업체들의 평균 판매 배분비율은 국내 판매가 66.2%, 외국으로의 수출이 33.8%

-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부분에서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10여개 지역으로 응답

다.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하여

- 북한의 7·1조치 중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대북 교역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에는 '납기일자 준수'와 '상품의 질 향상'에서 각각 교역업체들의 30.0%, 33.8%가 좋아졌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기록한 반면 '상품의 다양성 제고'는 17.7%만이 좋아졌다고 응답

<그림 5> 항목별 북한의 성과급 제도가 남북경협에 끼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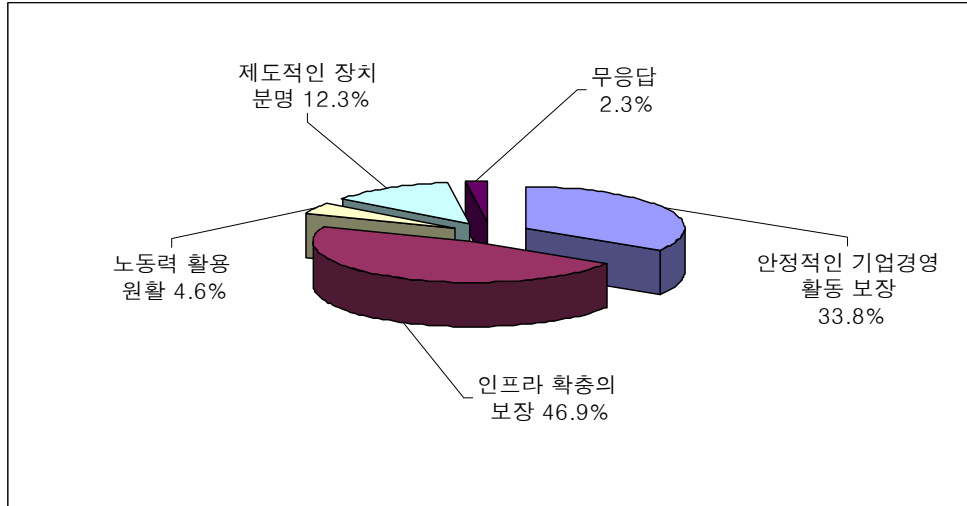
- 그러나 여전히 각 항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
- 반면 전문가들에게는 이 세가지 항목 중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납기일자 준수'가 가장 높은 48.5%의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변화가 없다'는 24.2%의 응답률을 기록
- 교역업체와 전문가의 응답을 비교하면 교역업체들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에 대체로 수긍하는 가운데 '납기일자 준수'(3.286), '상품의 질 향상'(3.271), '상품의 다양성 제고'(3.164)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전문가들은 '납기일자 준수'(48.5%), '상품의 다양성 제고'(18.2%), '상품의 질 향상'(9.1%) 순으로 응답

- 위 교역업체들의 항목별 수치는 각 항목별 교역업체들의 응답을 5점 만점 척도로 산정한 것으로 '아주 좋아졌다'를 5점 배분하고 '아주 나빠졌다'를 1점 배분한 척도 사용

* 본 문항에서 교역업체와 전문가에게 질문한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단순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고려할 정도

- 개성공단 입주 의사에 대하여 교역업체들에게 질문한 결과 '현재 입주를 구체적으로 계획'(4.6%)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고려'(18.9%)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전체의 33.8%를 차지
 - 교차분석 결과 대체로 모든 그룹에서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
- 한편 개성공단 입주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존의 대북 교역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9.6%이고,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8.7%에 불과
 - 교차분석 결과 두드러진 특이사항은 대북사업 기간 5년미만 업체들의 경우 83.3%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없는 반면
 - 5년이상 업체들의 경우는 54.5%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8.2%는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하겠다고 응답
 - 이는 5년미만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북사업을 잘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5년이상 업체들에게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개성공단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분석
 - 한편 앞에서 대북사업 기간 5년미만 업체들이 5년이상 업체들보다 이익을 남기는가에 대한 문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부합되는 결과로 판단
-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교역업체들의 입장은 '전력, 통신, 용수, 수송 등 인프라 확충의 보장'(46.9%)이 가장 중요하고, '체류자의 신변보장, 통행의 자유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 보장'(33.8%), '세금, 규제, 소유권 등 제도적인 장치 분명'(12.3%) 등 순으로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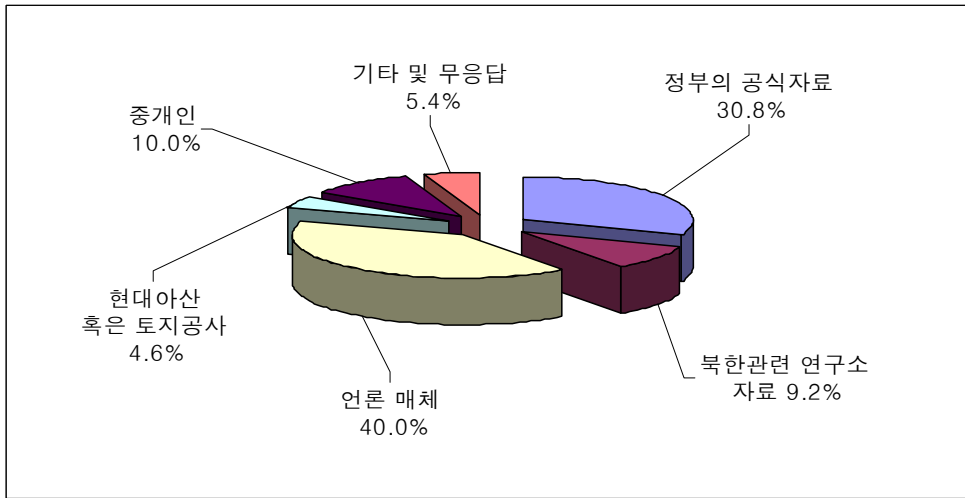
<그림 6>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 (교역업체)



- 전문가들의 입장 또한 비슷하게 ‘인프라 확충’(45.5%), ‘안정적인 기업경영’(36.4%), ‘제도적인 장치’ 및 ‘노동력 활용’ 각각 9.1% 순으로 표명
- 교차분석 결과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노동력 활용이 원활’해야 한다는 항목에 위탁가공 업체들의 경우 11.1%가 응답한 반면 단순교역 업체들의 경우 2.3%만이 응답
- 개성공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단지 조성 계획이 개성공단에 끼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한 교역업체의 57.7%, 전문가 집단의 90.9%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
 -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한 교역업체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개성공단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실제 필요한 부분을 알고 개성공단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등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시범단지 자체에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업체 또한 존재
 - 교역업체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미한 가운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5.4%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
 -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로서 교역업체들에게 개성공단 및 시범단지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 개성공단 관련 정보의 취득경로로는 교역업체의 40.0%가 ‘언론 매체’를 들었으며, ‘정부의 공식 자료’(30.8%), ‘중개인’(10.0%), ‘북한관련 연구소 자료’(9.2%) 등의 순으로 파악

<그림 7> 개성공단 관련 정보의 취득경로 (교역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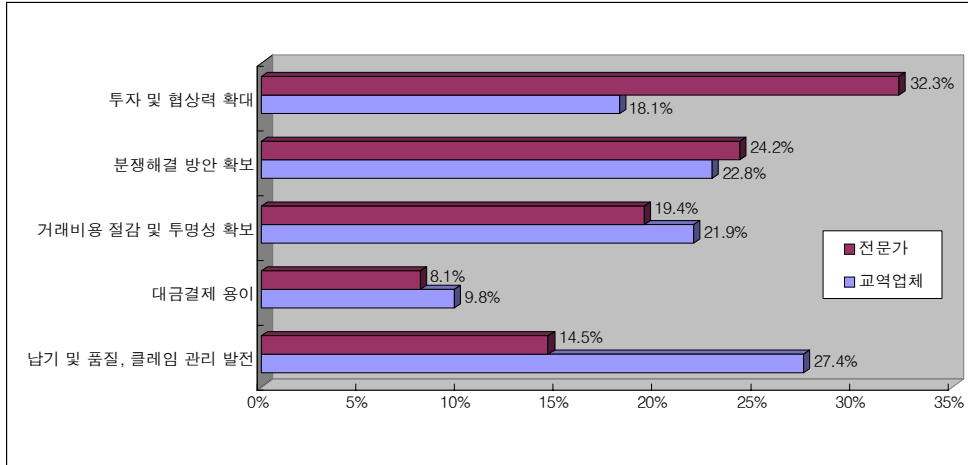


- 그러나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이 충분하다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넘는 66.9%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3.9%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특히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산 혹은 토지공사를 정보 취득경로로 응답한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현대아산과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

라.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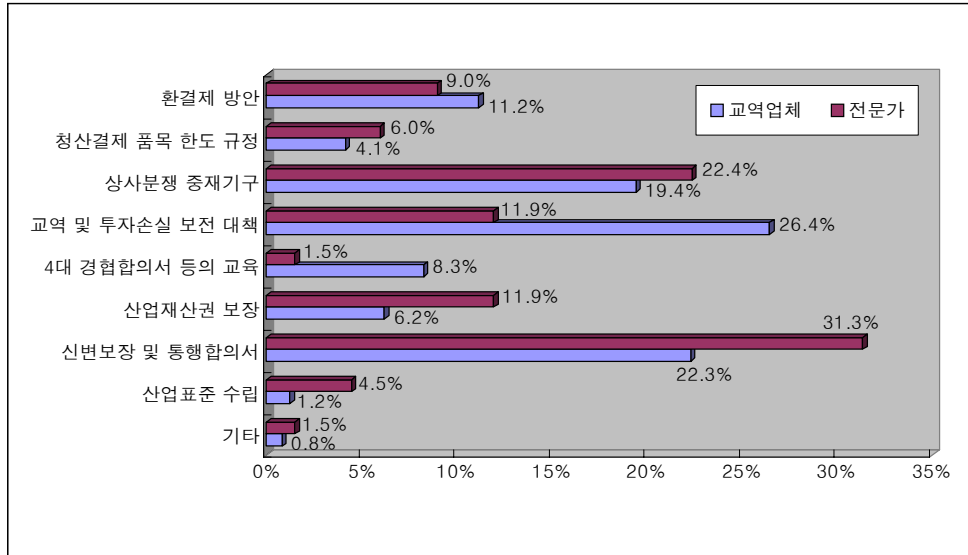
- 4대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로는 교역업체의 경우 ‘납기 및 품질, 클레임 관리가 보다 유리하게 발전’될 것이 가장 많은 27.4%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경우 ‘투자보장에 따라 투자 및 협상력 확대’가 가장 많은 32.3%로 응답
- 각 항목별 교역업체와 전문가의 응답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대금결제 용이’가 각각 9.8%와 8.1%로 교역업체 및 전문가 공히 가장 덜 중요하게 응답
 - 따라서 4대 경협합의서 중 청산결제 합의서를 통한 ‘대금결제 용이’의 기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그림 8>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 교역업체의 그룹별 교차분석은 전체 응답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전망
- 한편 전문가 33인 중 32인(96.9%)는 4대 경협합의서 발효가 향후 남북경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그 중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33.3%
-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숙지 정도는 교역업체의 47.7%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9.3%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 이는 앞에서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과 마찬가지로 교역업체들이 대북사업에 필요한 제반 정보에 대한 취득 및 이해 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정부, 관련기관, 관련 연구소 및 언론 매체 등의 대북사업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는 교역업체는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26.4%)를, 전문가들은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31.3%)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
 -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는 교역업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로 꼽혔으나, 전문가들에게는 11.9%의 중간순위 정도의 응답률을 기록
 - 반면 ‘산업재산권 보장’은 전문가들에게는 다소 중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교역업체들에게는 6.2%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제로 인식
 - 교역업체의 그룹별 교차분석은 전체 응답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평가

<그림 9>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선행과제



< 부록 1 > 대북교역업체 대상 설문 및 응답통계

<< 설문 - 교역업체 >>

I. 남북교역사업의 전망 및 현황

< 남북교역사업의 전망 >

1. 올해와 비교해 볼 때 내년의 전체적인 남북교역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많이 늘어날 것이다
 - ② 약간 늘어날 것이다
 - ③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약간 줄어든 것이다
 - ⑤ 많이 줄어든 것이다

2. 남북교역사업은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자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정치·외교적인 문제
 - ② 4대 경제협약의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제도적인 문제
 - ③ 물류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 문제
 - ④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에 관한 지원 등 행정적인 문제
 - ⑤ 기타: _____

3. 귀사는 올해와 비교해 볼 때 내년에 대북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확대할 것이다
 - ②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 ③ 축소할 것이다
 - ④ 중단할 생각이다

< 남북교역사업의 현황 >

4. 귀사는 남북교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5. 귀사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엇입니까?

- ① 농수산물 등 1차상품
- ② 섬유류
- ③ 화학공업제품
- ④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⑤ 생활용품
- ⑥ 전기·전자제품
- ⑦ 기타: _____

6. 귀사 교역품목의 최종 수요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전량 남한에 판매 (☞ 문7로)
- ② 일부는 남한, 일부는 외국(일본, 중국 등)으로 판매 (☞ 문6-1로)
- ③ 전량 외국으로 수출 (☞ 문6-2로)

6-1. (문6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만) 남한과 외국으로의 판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한: _____%, 외국: _____%

6-2. (문6에서 ③에 응답한 경우만) 주요 수출국가는 어디입니까?

주요 수출국가: _____

II.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하여

7.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도입한지도 1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7·1조치의 중요한 사항으로 생산능률 제고를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① 아주 좋아짐	② 좋아짐	③ 변화가 없음	④ 나빠짐	⑤ 아주 나빠짐
7-1.	상품의 납기일자 준수					
7-2.	상품의 질					
7-3.	상품의 다양성					

8. 남북한은 6월 공동으로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최하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세부규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개성공단 입주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 ②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③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 ④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8-1. 만약 개성공단 입주를 계획 혹은 고려하고 계신다면 귀사의 대북사업(위탁가공 혹은 단순교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기존의 대북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롭게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할 것이다
- ② 기존의 대북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그 여력을 개성공단에 투자할 것이다
- ③ 기존의 대북사업을 완전 정리하고 개성공단에만 전력 투자할 것이다

9.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력, 통신, 용수, 수송 등 인프라 확충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세금, 규제, 소유권 등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하여야 한다
- ③ 양질의 노동 공급, 임금협상 가능 등 노동력 활용이 원활해야 한다
- ④ 체류자의 신분보장, 통행의 자유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상품의 판매망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10. 최근 개성공단 외곽인 황해남도 판문읍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단지 계획은 개성공단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④ 모르겠다

10-1. 위 문항에 답하신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11. 개성공단 관련 정보취득에 관한 문항입니다.

11-1. 귀사는 개성공단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로 취득하고 있습니까?

- ① 통일부 등 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다
- ② 북한관련 연구소 자료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다
- ③ 언론 매체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다
- ④ 현대아산 혹은 토지공사의 자료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다
- ⑤ 귀사의 대북교역사업을 돕는 중개인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 ⑥ 기타: _____

11-2. 귀사가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아주 부족하다

III.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관하여

남북은 2000년 11월 11일 제2차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종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 한 뒤, 남한은 2003년 6월 30일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8월 20일 4대 경협합의서 발표통지문을 남북한간 교환하였습니다.

12.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로 귀사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2개 복수응답)

- ① 납기 및 품질, 클레임 관리가 보다 유리하게 발전
- ② 대금결제 용이
- ③ 거래비용의 절감 및 투명성 확보
- ④ 분쟁해결 방안 확보
- ⑤ 투자보장에 따라 투자 및 협상력 확대
- ⑥ 기타: _____

13.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4대 경협합의서 뿐만 아니라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여러 부문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 중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

응답)

- ① 환결제 방안 수립
- ② 청산결제 품목 한도 등에 대한 규정
- ③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
- ④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
- ⑤ 4대 경험합의서 등의 필요성·영향에 대한 기업 및 관계자 교육
- ⑥ 산업재산권 보장
- ⑦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
- ⑧ 산업표준 수립
- ⑨ 기타: _____

14. 귀사는 4대 경험합의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 ① 아주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아주 부족하다

IV.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정보 사항

1. 귀사의 연간 매출액과 대북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1) 업체 총 연간 매출액: _____ 원
- 2) 대북사업 관련 연간 매출액: _____ 원

2. 귀사는 몇 년 동안 대북교역사업을 하셨습니까? _____년

3. 귀사의 대북교역 사업 형태는?

- ① 단순교역
- ② 위탁가공

4. 귀사의 대북교역 사업 방식은?

- ① 직교역 (북한의 기업과 직접계약으로 교역)
- ② 간접교역 (중개인을 거친 간접계약으로 교역)
- ③ 혼합

<< 응답통계 >>

(1) 남북교역사업의 전망 및 현황

전체		빈도 수	내년 남북교역량 전망 (금년 대비)					무응답
			많이 늘어날 것	약간 늘어날 것	비슷할 것	약간 줄어들 것	많이 줄어들 것	
		130	14.6%	42.3%	33.1%	7.7%	1.5%	0.8%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10.5%	47.7%	31.4%	8.1%	2.3%	-
	위탁가공	36	22.2%	30.6%	36.1%	8.3%	-	2.8%
	혼합	3	33.3%	33.3%	33.3%	-	-	-
	무응답	5	20.0%	40.0%	40.0%	-	-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16.7%	38.9%	33.3%	5.6%	2.8%	2.8%
	간접교역	75	13.3%	44.0%	33.3%	8.0%	1.3%	-
	혼합	14	14.3%	42.9%	28.6%	14.3%	-	-
	무응답	5	20.0%	40.0%	40.0%	-	-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12.0%	38.0%	42.0%	6.0%	2.0%	2.0%
	20% 이상	56	19.6%	42.9%	28.6%	7.1%	1.8%	-
	무응답	24	8.3%	50.0%	29.2%	12.5%	-	-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18.8%	42.0%	29.0%	7.2%	2.9%	-
	5년 이상	54	11.1%	42.6%	37.0%	7.4%	-	1.9%
	무응답	7	-	42.9%	42.9%	14.3%	-	-

전체		빈도수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무응답
			정치·외교적 문제	제도적 문제	인프라 구축 문제	행정적 문제	기타	
		130	25.4%	15.4%	35.4%	20.0%	1.5%	2.3%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32.6%	15.1%	25.6%	24.4%	-	2.3%
	위탁가공	36	8.3%	13.9%	61.1%	11.1%	5.6%	-
	혼합	3	33.3%	33.3%	-	-	-	33.3%
	무응답	5	20.0%	20.0%	40.0%	20.0%	-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19.4%	8.3%	41.7%	22.2%	5.6%	2.8%
	간접교역	75	30.7%	17.3%	32.0%	17.3%	-	2.7%
	혼합	14	14.3%	21.4%	35.7%	28.6%	-	-
	무응답	5	20.0%	20.0%	40.0%	20.0%	-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26.0%	10.0%	40.0%	18.0%	4.0%	2.0%
	20% 이상	56	17.9%	16.1%	42.9%	19.6%	-	3.6%
	무응답	24	41.7%	25.0%	8.3%	25.0%	-	-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26.1%	10.1%	42.0%	18.8%	-	2.9%
	5년 이상	54	22.2%	22.2%	29.6%	20.4%	3.7%	1.9%
	무응답	7	42.9%	14.3%	14.3%	28.6%	-	-

전체		빈도수	내년 대북사업 계획 (금년 대비)				무응답
			확대할 것	비슷할 것	축소할 것	중단할 것	
		130	29.2%	54.6%	9.2%	5.4%	1.5%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27.9%	52.3%	14.0%	4.7%	1.2%
	위탁가공	36	33.3%	55.6%	-	8.3%	2.8%
	혼합	3	33.3%	66.7%	-	-	-
	무응답	5	20.0%	80.0%	-	-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36.1%	50.0%	11.1%	2.8%	-
	간접교역	75	26.7%	54.7%	9.3%	6.7%	2.7%
	혼합	14	28.6%	57.1%	7.1%	7.1%	-
	무응답	5	20.0%	80.0%	-	-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20.0%	60.0%	8.0%	8.0%	4.0%
	20% 이상	56	41.1%	44.6%	10.7%	3.6%	-
	무응답	24	20.8%	66.7%	8.3%	4.2%	-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36.2%	42.0%	14.5%	5.8%	1.4%
	5년 이상	54	22.2%	68.5%	3.7%	3.7%	1.9%
	무응답	7	14.3%	71.4%	-	14.3%	-

전체		빈도수	남북교역을 통한 이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130	44.6%	53.8%	1.5%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39.5%	59.3%	1.2%
	위탁가공	36	58.3%	38.9%	2.8%
	혼합	3	-	100.0%	-
	무응답	5	60.0%	40.0%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44.4%	55.6%	-
	간접교역	75	46.7%	50.7%	2.7%
	혼합	14	28.6%	71.4%	-
	무응답	5	60.0%	40.0%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30.0%	68.0%	2.0%
	20% 이상	56	58.9%	39.3%	1.8%
	무응답	24	41.7%	58.3%	-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49.3%	49.3%	1.4%
	5년 이상	54	37.0%	61.1%	1.9%
	무응답	7	57.1%	42.9%	-

전체		빈도 수	주요 교역품목						
			1차산품	섬유류	화학공 업체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 용품	전기· 전자제 품	기타 및 무응답
		130	58.5%	16.9%	3.8%	2.3%	4.6%	6.2%	7.7%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76.7%	1.2%	4.7%	2.3%	4.7%	2.3%	8.2%
	위탁가공	36	13.9%	58.3%	2.8%	-	2.8%	16.7%	5.6%
	혼합	3	100.0%	-	-	-	-	-	-
	무응답	5	40.0%	-	-	20.0%	20.0%	-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44.4%	25.0%	2.8%	2.8%	2.8%	19.4%	2.8%
	간접교역	75	66.7%	16.0%	4.0%	1.3%	4.0%	1.3%	6.7%
	혼합	14	57.1%	7.1%	7.1%	-	7.1%	-	21.4%
	무응답	5	40.0%	-	-	20.0%	20.0%	-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54.0%	14.0%	2.0%	-	10.0%	14.0%	6.0%
	20% 이상	56	64.3%	21.4%	1.8%	3.6%	1.8%	-	7.2%
	무응답	24	54.2%	12.5%	12.5%	4.2%	-	4.2%	12.5%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65.2%	13.0%	1.4%	4.3%	2.9%	4.3%	8.6%
	5년 이상	54	48.1%	22.2%	7.4%	-	7.4%	9.3%	5.6%
	무응답	7	71.4%	14.3%	-	-	-	-	14.3%

전체		빈도수	교역품의 최종 수요지역			
			전량 남한에 판매	일부 남한, 일부 외국에 판매	전량 외국에 수출	무응답
		130	72.3%	20.0%	3.8%	3.8%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79.1%	16.3%	4.7%	-
	위탁가공	36	61.1%	30.6%	2.8%	5.6%
	혼합	3	33.3%	33.3%	-	33.3%
	무응답	5	60.0%	-	-	4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66.7%	30.6%	-	2.8%
	간접교역	75	77.3%	14.7%	5.3%	2.7%
	혼합	14	64.3%	28.6%	7.1%	-
	무응답	5	60.0%	-	-	4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74.0%	18.0%	4.0%	4.0%
	20% 이상	56	73.2%	23.2%	1.8%	1.8%
	무응답	24	66.7%	16.7%	8.3%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76.8%	17.4%	4.3%	1.4%
	5년 이상	54	66.7%	24.1%	3.7%	5.6%
	무응답	7	71.4%	14.3%	-	14.3%

(2) 최근 북한의 변화에 관하여

전체		빈도수	7·1조치 이후 상품의 납기일자 준수					
			아주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나빠졌다	아주 나빠졌다	무응답
		130	0.8%	29.2%	57.7%	3.1%	0.8%	8.5%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	24.4%	61.6%	4.7%	1.2%	8.1%
	위탁가공	36	2.8%	44.4%	50.0%	-	-	2.8%
	혼합	3	-	-	66.7%	-	-	33.3%
	무응답	5	-	20.0%	40.0%	-	-	4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	30.6%	61.1%	5.6%	-	2.8%
	간접교역	75	1.3%	28.0%	58.7%	1.3%	1.3%	9.3%
	혼합	14	-	35.7%	50.0%	7.1%	-	7.1%
	무응답	5	-	20.0%	40.0%	-	-	4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	26.0%	62.0%	-	2.0%	10.0%
	20% 이상	56	1.8%	35.7%	53.6%	5.4%	-	3.6%
	무응답	24	-	20.8%	58.3%	4.2%	-	16.7%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1.4%	24.6%	62.3%	5.8%	-	5.8%
	5년 이상	54	-	35.2%	53.7%	-	1.9%	9.3%
	무응답	7	-	28.6%	42.9%	-	-	28.6%

전체		빈도 수	7·1조치 이후 상품의 질 향상					무응답
			아주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나빠졌다	아주 나빠졌다	
			130	-	33.8%	49.2%	6.2%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	31.4%	52.3%	5.8%	1.2%	9.3%
	위탁가공	36	-	44.4%	41.7%	8.3%	2.8%	2.8%
	혼합	3	-	33.3%	33.3%	-	-	33.3%
	무응답	5	-	-	60.0%	-	-	4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	50.0%	38.9%	5.6%	2.8%	2.8%
	간접교역	75	-	25.3%	57.3%	5.3%	1.3%	10.7%
	혼합	14	-	50.0%	28.6%	14.3%	-	7.1%
	무응답	5	-	-	60.0%	-	-	4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	34.0%	50.0%	2.0%	4.0%	10.0%
	20% 이상	56	-	32.1%	51.8%	12.5%	-	3.6%
	무응답	24	-	37.5%	41.7%	-	-	20.8%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	27.5%	58.0%	8.7%	-	5.8%
	5년 이상	54	-	42.6%	38.9%	3.7%	3.7%	11.1%
	무응답	7	-	28.6%	42.9%	-	-	28.6%

전체		빈도 수	7·1조치 이후 상품의 다양성 제고					무응답
			아주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가 없다	나빠졌다	아주 나빠졌다	
			130	-	17.7%	69.2%	1.5%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	16.3%	69.8%	2.3%	1.2%	10.5%
	위탁가공	36	-	19.4%	75.0%	-	-	5.6%
	혼합	3	-	33.3%	33.3%	-	-	33.3%
	무응답	5	-	20.0%	40.0%	-	-	4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	22.2%	72.2%	-	-	5.6%
	간접교역	75	-	16.0%	69.3%	1.3%	1.3%	12.0%
	혼합	14	-	14.3%	71.4%	7.1%	-	7.1%
	무응답	5	-	20.0%	40.0%	-	-	4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	18.0%	68.0%	2.0%	2.0%	10.0%
	20% 이상	56	-	19.6%	71.4%	1.8%	-	7.1%
	무응답	24	-	12.5%	66.7%	-	-	20.8%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	18.8%	71.0%	2.9%	-	7.2%
	5년 이상	54	-	18.5%	66.7%	-	1.9%	13.0%
	무응답	7	-	-	71.4%	-	-	28.6%

전체		빈도수	개성공단 입주계획				
			구체적으로 계획 중	긍정적으로 고려	상황에 따라 결정	전혀 고려 않음	무응답
			130	4.6%	13.1%	52.3%	26.2%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3.5%	16.3%	46.5%	30.2%	3.5%
	위탁가공	36	8.3%	8.3%	69.4%	13.9%	-
	혼합	3	-	-	33.3%	33.3%	33.3%
	무응답	5	-	-	40.0%	40.0%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11.1%	13.9%	58.3%	13.9%	2.8%
	간접교역	75	2.7%	13.3%	52.0%	28.0%	4.0%
	혼합	14	-	14.3%	42.9%	42.9%	-
	무응답	5	-	-	40.0%	40.0%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4.0%	14.0%	54.0%	26.0%	2.0%
	20% 이상	56	5.4%	12.5%	55.4%	23.2%	3.6%
	무응답	24	4.2%	12.5%	41.7%	33.3%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2.9%	14.5%	52.2%	27.5%	2.9%
	5년 이상	54	7.4%	13.0%	55.6%	20.4%	3.7%
	무응답	7	-	-	28.6%	57.1%	14.3%

전체		빈도수	개성공단 입주시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		
			추가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	일부 개성공단으로 전환	개성공단에 전력 투자
			23	69.6%	21.7%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17	70.6%	23.5%	5.9%
	위탁가공	6	66.7%	16.7%	16.7%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9	66.7%	22.2%	11.1%
	간접교역	12	66.7%	25.0%	8.3%
	혼합	2	100.0%	-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9	77.8%	11.1%	11.1%
	20% 이상	10	50.0%	40.0%	10.0%
	무응답	4	100.0%	-	-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12	83.3%	16.7%	-
	5년 이상	11	54.5%	27.3%	18.2%

전체		빈도수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항					무응답
			인프라 확충	제도적 장치	노동력 활용	안정적 기업경영	판매망 확보	
		130	46.9%	12.3%	4.6%	33.8%	-	2.3%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45.3%	11.6%	2.3%	38.4%	-	2.3%
	위탁가공	36	50.0%	13.9%	11.1%	25.0%	-	-
	혼합	3	33.3%	33.3%	-	33.3%	-	-
	무응답	5	60.0%	-	-	20.0%	-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50.0%	11.1%	5.6%	30.6%	-	2.8%
	간접교역	75	42.7%	12.0%	5.3%	38.7%	-	1.3%
	혼합	14	57.1%	21.4%	-	21.4%	-	-
	무응답	5	60.0%	-	-	20.0%	-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44.0%	14.0%	4.0%	38.0%	-	-
	20% 이상	56	42.9%	7.1%	7.1%	41.1%	-	1.8%
	무응답	24	62.5%	20.8%	-	8.3%	-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39.1%	14.5%	7.2%	36.2%	-	2.9%
	5년 이상	54	57.4%	9.3%	1.9%	31.5%	-	-
	무응답	7	42.9%	14.3%	-	28.6%	-	14.3%

전체		빈도수	시범단지 계획의 개성공단사업에 끼치는 영향				무응답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이 없다	모르겠다	
		130	57.7%	5.4%	6.9%	25.4%	4.6%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55.8%	5.8%	9.3%	22.1%	7.0%
	위탁가공	36	58.3%	2.8%	2.8%	36.1%	-
	혼합	3	100.0%	-	-	-	-
	무응답	5	60.0%	20.0%	-	20.0%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58.3%	8.3%	11.1%	19.4%	2.8%
	간접교역	75	58.7%	2.7%	6.7%	25.3%	6.7%
	혼합	14	50.0%	7.1%	-	42.9%	-
	무응답	5	60.0%	20.0%	-	20.0%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64.0%	4.0%	6.0%	22.0%	4.0%
	20% 이상	56	62.5%	8.9%	1.8%	23.2%	3.6%
	무응답	24	33.3%	-	20.8%	37.5%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58.0%	4.3%	7.2%	24.6%	5.8%
	5년 이상	54	59.3%	7.4%	5.6%	25.9%	1.9%
	무응답	7	42.9%	-	14.3%	28.6%	14.3%

전체		빈도 수	개성공단 관련 정보 취득경로					기타 및 무응답
			정부의 공식자료	연구소 자료	언론 매체	현대아산 토지공사	중개인	
		130	30.8%	9.2%	40.0%	4.6%	10.0%	5.3%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32.6%	9.3%	44.2%	1.2%	8.1%	4.7%
	위탁가공	36	25.0%	11.1%	33.3%	11.1%	16.7%	2.8%
	혼합	3	66.7%	-	-	-	-	33.3%
	무응답	5	20.0%	-	40.0%	20.0%	-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47.2%	5.6%	25.0%	8.3%	8.3%	5.6%
	간접교역	75	22.7%	12.0%	46.7%	2.7%	12.0%	4.0%
	혼합	14	35.7%	7.1%	42.9%	-	7.1%	7.1%
	무응답	5	20.0%	-	40.0%	20.0%	-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30.0%	20.0%	30.0%	8.0%	10.0%	2.0%
	20% 이상	56	35.7%	3.6%	37.5%	3.6%	12.5%	7.2%
	무응답	24	20.8%	-	66.7%	-	4.2%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27.5%	11.6%	39.1%	4.3%	10.1%	6.2%
	5년 이상	54	35.2%	7.4%	38.9%	5.6%	11.1%	1.9%
	무응답	7	28.6%	-	40.0%	20.0%	-	20.0%

전체		빈도 수	개성공단 관련 정보량					무응답
			아주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아주 부족하다	
		130	0.8%	3.1%	26.2%	47.7%	19.2%	3.1%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	3.5%	24.4%	46.5%	22.1%	3.5%
	위탁가공	36	2.8%	2.8%	30.6%	47.2%	16.7%	-
	혼합	3	-	-	66.7%	33.3%	-	-
	무응답	5	-	-	-	80.0%	-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2.8%	-	38.9%	44.4%	11.1%	2.8%
	간접교역	75	-	2.7%	21.3%	50.7%	24.0%	1.3%
	혼합	14	-	14.3%	28.6%	28.6%	21.4%	7.1%
	무응답	5	-	-	-	80.0%	-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2.0%	4.0%	34.0%	46.0%	12.0%	2.0%
	20% 이상	56	-	-	25.0%	48.2%	23.2%	3.6%
	무응답	24	-	8.3%	12.5%	50.0%	25.0%	4.2%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	1.4%	23.2%	52.2%	17.4%	5.8%
	5년 이상	54	1.9%	5.6%	31.5%	37.0%	24.1%	-
	무응답	7	-	-	14.3%	85.7%	-	-

(3)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관하여

전체		빈도수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중복응답)				
			납기, 품질 클레임 관리 유리	대금결제 용이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	분쟁해결 방안 확보	투자 및 협상력 확대
		215(120)	27.4%	9.8%	21.9%	22.8%	18.1%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0	28.4%	9.9%	23.4%	22.0%	16.3%
	위탁가공	35	24.6%	7.7%	21.5%	23.1%	23.1%
	혼합	2	25.0%	25.0%	-	25.0%	25.0%
	무응답	3	40.0%	20.0%	-	40.0%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4	20.0%	11.7%	20.0%	25.0%	23.3%
	간접교역	71	30.5%	7.0%	24.2%	21.9%	16.4%
	혼합	12	27.3%	18.2%	18.2%	18.2%	18.2%
	무응답	3	40.0%	20.0%	-	40.0%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48	20.7%	10.3%	25.3%	26.4%	17.2%
	20% 이상	52	33.0%	10.6%	21.3%	16.0%	19.1%
	무응답	20	29.4%	5.9%	14.7%	32.4%	17.6%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1	32.7%	10.9%	18.2%	21.8%	16.4%
	5년 이상	53	19.1%	9.6%	28.7%	23.4%	19.1%
	무응답	6	45.5%	-	-	27.3%	27.3%

전체		빈도수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선행과제 (중복응답)								
			환결제 방안 수립	청산결 제품목 한도	상사분쟁 증재기구	교역투 자손실 보전	4대경 협합의 서교육	산업재 산권 보장	신변보 장통행 합의	산업표 준수립	기타
		242(127)	11.2%	4.1%	19.4%	26.4%	8.3%	6.2%	22.3%	1.2%	0.8%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4	11.9%	3.1%	18.9%	27.7%	6.9%	6.9%	22.6%	1.3%	0.6%
	위탁가공	36	8.5%	7.0%	19.7%	23.9%	12.7%	5.6%	19.7%	1.4%	1.4%
	혼합	3	16.7%	-	16.7%	33.3%	-	-	33.3%	-	-
	무응답	4	16.7%	-	33.3%	16.7%	-	-	33.3%	-	-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5	14.7%	4.4%	17.6%	32.4%	10.3%	5.9%	14.7%	-	-
	간접교역	75	9.1%	4.2%	18.2%	24.5%	8.4%	6.3%	26.6%	2.1%	0.7%
	혼합	13	12.0%	4.0%	28.0%	24.0%	4.0%	8.0%	16.0%	-	4.0%
	무응답	4	16.7%	-	33.3%	16.7%	-	-	33.3%	-	-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13.5%	6.3%	19.8%	25.0%	11.5%	3.1%	18.8%	1.0%	1.0%
	20% 이상	55	10.7%	2.9%	15.5%	26.2%	6.8%	6.8%	29.1%	1.9%	-
	무응답	22	7.0%	2.3%	27.9%	30.2%	4.7%	11.6%	14.0%	-	2.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7	8.9%	4.0%	18.5%	29.8%	7.3%	5.6%	23.4%	1.6%	0.8%
	5년 이상	54	15.0%	4.7%	20.6%	22.4%	9.3%	6.5%	19.6%	0.9%	0.9%
	무응답	6	-	-	18.2%	27.3%	9.1%	9.1%	36.4%	-	-

전체		빈도 수	4대 경협합의서 숙지 정도					
			아주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아주 부족하다	무응답
		130	0.8%	8.5%	41.5%	38.5%	9.2%	1.5%
대북사업 형태	단순교역	86	1.2%	9.3%	37.2%	38.4%	12.8%	1.2%
	위탁가공	36	-	8.3%	47.2%	41.7%	2.8%	-
	혼합	3	-	-	100.0%	-	-	-
	무응답	5	-	-	40.0%	40.0%	-	20.0%
대북사업 방식	직교역	36	2.8%	5.6%	55.6%	30.6%	2.8%	2.8%
	간접교역	75	-	9.3%	33.3%	44.0%	13.3%	-
	혼합	14	-	14.3%	50.0%	28.6%	7.1%	-
	무응답	5	-	-	40.0%	40.0%	-	20.0%
대북교역 비중	20% 미만	50	-	12.0%	50.0%	30.0%	8.0%	-
	20% 이상	56	1.8%	5.4%	42.9%	41.1%	8.9%	-
	무응답	24	-	8.3%	20.8%	50.0%	12.5%	8.3%
대북사업 기간	5년 미만	69	-	4.3%	40.6%	42.0%	11.6%	1.4%
	5년 이상	54	1.9%	14.8%	44.4%	31.5%	7.4%	-
	무응답	7	-	-	28.6%	57.1%	-	14.3%

< 부록 2 > 전문가 대상 설문 및 응답통계

<< 설문 - 전문가집단 >>

1. 선생님께서는 올해와 비교해 볼 때 내년의 전체적인 남북교역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① 많이 늘어날 것이다
 - ② 약간 늘어날 것이다
 - ③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
 - ④ 약간 줄어든 것이다
 - ⑤ 많이 줄어든 것이다

2. 선생님께서는 남북교역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자회담의 진행과정 등의 정치·외교적인 문제
 - ②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제도적인 문제
 - ③ 물류수송,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구축 문제
 - ④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에 관한 지원 등 행정적인 문제
 - ⑤ 기타: _____

3. 북한은 지난 7·1조치의 중요한 사항으로 생산능률 제고를 위하여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① 상품의 납기일자가 제대로 잘 지켜질 것이다
 - ② 상품의 질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 ③ 상품의 다양성이 제고되어질 것이다
 - ④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⑤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선생님께서는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력, 통신, 용수, 수송 등 인프라 확충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세금, 규제, 소유권 등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하여야 한다
 - ③ 양질의 노동 공급 및 임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 ④ 채류자의 신변보장, 통행의 자유 등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상품의 판매망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5. 최근 개성공단 외곽인 황해남도 판문읍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시범단지 계획이 개성공단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남북은 2000년 11월 11일 제2차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채택하고 가서명 한 뒤, 남한은 2003년 6월 30일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8월 20일 4대 경협합의서 발표통지문을 남북한간 교환하였습니다.

6. 선생님께서는 최근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가 향후 남북경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 ② 긍정적일 것이다
- ③ 이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④ 4대 경협합의서의 필요성·영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로 민간기업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2개 복수응답)

- ① 납기 및 품질, 클레임 관리가 보다 유리하게 발전
- ② 대금결제 용이
- ③ 거래비용의 절감 및 투명성 확보
- ④ 분쟁해결 방안 확보
- ⑤ 투자보장에 따라 투자 및 협상력 확대
- ⑥ 기타: _____

8.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4대 경협합의서 뿐만 아니라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여러 부문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 중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응답)

- ① 환결제 방안 수립

- ② 청산결제 품목 한도 등에 대한 규정
- ③ 상사분쟁 중재기구의 설치
- ④ 교역 및 투자손실 보전 대책 강구
- ⑤ 4대 경협합의서 등의 필요성·영향에 대한 기업 및 관계자 교육
- ⑥ 산업재산권 보장
- ⑦ 신변보장 및 통행 합의서 채택
- ⑧ 산업표준 수립
- ⑨ 기타: _____

<< 응답통계 >>

전문가집단	빈도수	내년 남북교역량 전망 (금년 대비)					
		많이 늘어날 것	약간 늘어날 것	비슷할 것	약간 줄어들 것	많이 줄어들 것	무응답
	33	24.2%	60.6%	15.2%	-	-	-
교역업체	130	14.6%	42.3%	33.1%	7.7%	1.5%	0.8%

전문가집단	빈도수	남북교역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환경				
		정치· 외교적 문제	제도적 문제	인프라 구축 문제	행정적 문제	기타 및 무응답
	33	54.5%	18.2%	18.2%	3.0%	6.1%
교역업체	130	25.4%	15.4%	35.4%	20.0%	3.8%

전문가집단	빈도수	성과급제도 도입 영향				
		납기일자 준수	상품의 질 향상	상품의 다양성 제고	변화없음	오히려 부정적
	33	48.5%	9.1%	18.2%	24.2	-

전문가집단	빈도수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항					
		인프라 확충	제도적 장치	노동력 활용	안정적 기업경영	판매망 확보	무응답
	33	45.5%	9.1%	9.1%	36.4%	-	-
교역업체	130	46.9%	12.3%	4.6%	33.8%	-	2.3%

전문가집단	빈도수	시범단지 계획의 개성공단사업에 끼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영향이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33	90.9%	9.1%	-	-	-
교역업체	130	57.7%	5.4%	6.9%	25.4%	4.6%

전문가집단	빈도수	4대 경험합의서 발효가 남북경협에 끼칠 영향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별 차이가 없다
	33	33.3%	63.6%	3.0%

전문가집단	빈도수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민간기업에의 기대효과 (중복응답)					
		납기, 품질 클레임 관리 유리	대금결제 용이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	분쟁해결 방안 확보	투자 및 협상력 확대	기타
		62(32)	14.5%	8.1%	19.4%	24.2%	32.3%
교역업체	215(120)	27.4%	9.8%	21.9%	22.8%	18.1%	-

전문가집단	빈도수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선행과제 (중복응답)								
		환결제 방안 수립	청산 결제 품목 한도	상사 분쟁 중재 기구	교역 투자 손실 보전	4대경협 합의서 교육	산업 재산권 보장	신변 보장 통행 합의	산업 표준 수립	기타
		67(33)	9.0%	6.0%	22.4%	11.9%	1.5%	11.9%	31.3%	4.5%
교역업체	242(127)	11.2%	4.1%	19.4%	26.4%	8.3%	6.2%	22.3%	1.2%	0.8%